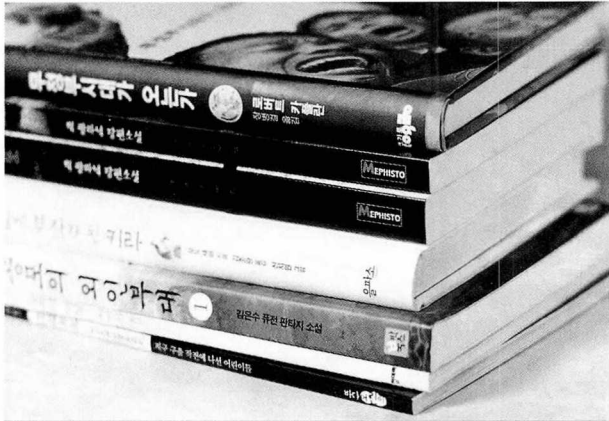


사업분야 확대로 시장공략 나선 출판사들

출판사들의 자회사 설립 및 브랜드 창출 현황



최근 출판영역을 다각화한 출판사들이 내놓은 책.

최근 출판사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내각쇄신'이 이뤄지고 있다. 한두가지 분야로 전문영역을 구축한 출판사들이 자회사나 새로운 사업본부 설립 등으로 사세 확장을 꾀하고 있다. 그동안 주로 출판사 자회사들이 어린이책 시장을 두드린 반면, 최근에는 인문학 전문출판사가 비소설류 출판으로, 대중출판사가 인문·사회과학 출판으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해 눈길을 끈다.

새로운 시리즈로 이미지 변신 꾀해

그동안 인문·문학서 출간에 주력해왔던 책세상은 지난 8월 <메피스토> 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였다. 대중물을 표방하고 나온 <메피스토> 시리즈의 문을 연 작품은 척 팔라닉의 <파이트 클럽>과 <서바이버>(이상 최필원다).

책세상의 김광식 주간은 "〈메피스토〉는 인문학 중심의 출판사로 굳어진 그동안의 무거운 이미지를 벗기 위해 기획했다. 앞으로 대중문학 장르에 속하면서도 문학성을 갖춘 독특한 작가들의 작품을 번역 소개할 예정이다. 아직은 국내 대중물에서 애매한 판타지나 추리

소설이 많아 시리즈에 부합하는 작품을 찾기 어렵지만, 좋은 작품이 있다면 국내 작가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김주간은 또 "출간 초기라 재판의 가능성은 지켜봐야겠지만, 일부 독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며, "표지에 책세상이 아니라 '메피스토'라 명기돼 독자들이 새로운 출판사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책세상의 변신이 인문학 중심 출판사의 무게를 덜어내는 데 있다면, 들녘은 기존의 이미지에 무게를 더하는 경우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코기토> 시리즈는 데카르트가 내세운 유명한 명제 "cogito ergo sum -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에서 이름을 따왔다.

들녘의 박성규 주간은 "〈코기토〉는 독립된 자회사는 아니고, 시리즈보다는 큰 개념이다. 앞으로 인문·사회·자연분야의 책들을 일반교양수준에 맞춰 펴낼 예정이다. 특히 외국에선 논의가 됐지만 국내에선 소개가 안된 책들, 또 원서를 보지 않으면 읽기 힘들었던 책들을 계속 소개할 예정이다"고 말한다. 로버트 카플란의 <무정부시대가 오는가>(장병걸)가 시리즈의 첫권으로 출간됐고, 앞으로 두달에 세권, 다시 매달 두권씩으로 종수를 늘려갈 생각이다. 들녘은 또 오래 전부터 출판분야 다각화를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여성을 주요 독자로서와 산문을 출판하는 <그림 같은 세상>을 선보였고, 오는 10월에는 어린이책을 펴내온 들

녘키드를 여우당이란 법인체로 새롭게 출발시킬 예정이다.

비소설 분야 확대가 가장 두드러져

대중지향성은 출판사들의 이미지 변신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변화된 시장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변화의 양상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먼저 인문학 관련 출판사들의 비소설 분야 진출이다. 이런 움직임은 자회사 설립으로 이어지는 게 대부분이다. 또다른 하나는 전문화된 출판분야를 더욱 세분화하는 경우다.

인문·사회과학·역사 분야의 책들을 출간하는 까치글방은 비소설을 주로 소개하는 청미래를 설립했다. 이름은 1999년 판타지 소설을 전문 출간하는 자음과모음을 설립했고, 중앙M&B도 북박스를 설립해 판타지 소설 시장을 공략하고 나섰다. 또 철학과 사회·기술포럼 책을 주로 출간하는 가림출판사도 같은 해 가림M&B를 설립해 경제관련 실용서들을 펴내고 있다. 푸른숲도 지난해 직원 일부를 마음산책으로 분가시켜 현재까지 20여종에 이르는 비소설 분야 책들을 출간했다.

최근에는 만화시장에 일대 붐이 일면서 본격적으로 만화시장에 뛰어들어 출판사들도 있다. 문학동네는 지난 7월 애니북스를 설립했고, 바다출판사는 최근 <바다그림판> 시리즈를 선보였다.

국일증권경제연구소와 을파소는 후자의 경우다. 국일증권경제연구소는 그동안 경제·경영서를 출간해온 국일미디어의 자회사로 경제분야 가운데서도 증권관련 책들을 펴내고 있다. 을파소는 경제·경영서 전문출판으로 자리를 굳힌 (주)21세기가 선보인 새로운 브랜드다. 을파소는 특히 어린이 경제도서라는 독특한 장르를 개척해 주목할 만하다. 권무혁 본부장은 "어린이들에게 현실적인 경제관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선은 기존의 성과물을 바탕으로 경제도서를 펴내고 좀 지나면 리더십과 직업관련 분야까지 소개할 예정이다"고 말한다. —박옥순기자